

이기는 삶

리더의 얼굴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할까? 자신의 기분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얼굴,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전체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조직의 리더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아버지의 얼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어떤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으며 외부의 위협(威脅)으로부터 가족(家族)을 지켜줄 수 있으며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는 든든한 아버지였을 것이다. 바로 든든한 그 아버지의 얼굴이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리더의 얼굴이다.

그다음으로 보았던 리더의 얼굴은 학창 시절의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얼굴이다. 존경(尊敬)하는 선생님은 닮고 싶은 사람이다. 세상은 든든한 아버지와 존경하는 선생님과 같은 리더를 원한다.

작게는 학창 시절의 반장으로부터 크게는 한 나라를 경영(經營)하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리더가 기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고 리더가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리더라면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리더는 공감(共感)하는 얼굴을 해야 한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眞心)으로 이해(理解)하고 인정(認定)하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염려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을 믿는다.

둘째, 리더는 자신 있는 얼굴을 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공포와 불안, 망설임뿐이라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전장(戰場)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기가 아니다. 두려움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는 리더를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셋째, 리더는 집중하는 얼굴이어야 한다. 진정한 집중력은 계획(計劃)에 따라 행동(行動)하겠다는 단호한 의지(意志)에서 나온다. 집중력은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킨다.

넷째, 리더는 관심(關心) 있는 얼굴을 해야 한다. 관심을 가지려면 상대를 존중(尊重)해야 한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에 지장(支障)을 초래(招來)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리더는 상황에 맞추어 실망한 얼굴을 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결과에 대해 실망했다면 주위 사람들은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그 실망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긍정적인 성장이란 실망감을 표현하고 그들을 이끌어 성공(成功)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나라는 것을 잊어야 한다. You have to forget yourself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였다.

▶ Humans were originally God.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간의 탈을 벗고 하나님으로 환원되어야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 Therefore, only when you are reborn as the Holy Spirit, when you take off the human mask and when you return to God will you live in heaven.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나라를 잊어버려야 된다.

▶ To be reborn as God, you have to forget yourself.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밖에 없다.

▶ To forget yourself is the only way to truly adore God.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전체를 맡겨야 한다.

▶ You have to leave all matters to God, in love and trust with Him.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심을 받고 주장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다.

▶ When you are led and ruled as God leads you, you will be transformed into the Spirit of God.

기도할 때에도 내가 기도해서는 안된다.

▶ Even when you pray, yourself should not pray.

하나님이 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주소서 하고 간절히 바래야 된다.

▶ You must earnestly pray that God will come and lead and claim you.\*

by Alice

고 네 생물의 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생물의 얼굴은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서 1:10)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이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데.” (요한계시록 4:7)

에스겔과 요한은 똑같이 네 생물의 형상을 비전(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두 예언자가 동일한 하나의 비전을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있었습디다.

네 생물의 정체는 이제껏 풀지 못한 미스터리해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7번째 인(印)을 떼면 이긴자가 출현하기 전에는 어떠한 당연한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이긴자의 말씀을 토대로 네 생물을 영적 상징으로 보고 들여다보면 그 정체 또한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의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표면에 보이는 모습, 현실 표층에 등장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의 의식, 내지 페르조나(persona)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얼굴 마담’ 혹은 ‘바지 사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이 ‘나’이고 주인인 것 같지만 실은 고용인, 종일 뿐입니다. 이제 실제 주인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의 오른쪽은 사자입니다. 오른쪽은 주도권을 천 쪽, 양지(陽地), 주인을 의미합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 즉 마귀 왕이며 파자로도 사자 獅子는 개 같은 짐승 룽(兪) + 스승 사(師)+아들 자(子)이니 마귀의 아들,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왕인 사자가 주인입니다.

또 다른 얼굴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도 날짐승의 왕입니다. 게다가 ‘공중권세 잡은 신이 약신이다’ (에베소서 2:2)라 했으니 독수리 또한 마귀 신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왼쪽 얼굴이 소입니다. 소는 엄마 소(牛), 천마지우(天馬地牛)이니 이론의 여지없이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왼쪽은 우열 중 열등한 쪽, 빛과 그림자 중 그림자 쪽을 상징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리가 그러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생물의 전면은 인간, 왼쪽 면은 하나님, 나머지 두 면은 마귀 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얼굴을 가진 존재는 무

영적 상징과 꿈 <19>

부제: 영적 상징으로 본 네 생물

영적 거인들은 완성, 미완성을 떠나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임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동양의 그 어떤 경전보다도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인신합일(人神合一)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 인신합일 vs 하나님 인신합일

인신합일은 인간 ‘내가 있고 하나님’ 그 가 있는 상태에서 막연히 두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식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인신합일(人神合一)은 이제까지 보았듯, 주제영에 관한 담론(談論)이며 누가 ‘나’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해와는 원래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하나였습니다. 이는 아담과 해와의 주제영이 하나님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낙원 사건 이후 마귀 신이 나라는 의식, 주제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또한 인신합일(人神合一)이라면 인신



<네 생물과 어린양>

합일입니다. 그 신(神)이 마귀 신이라는 역설이 문제이지요.

인간은 이미 마귀의 신과 인신합일을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마귀 신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신과 하나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귀가 차지한 주제영 자리를 하나님의 신이 다시 차지할 때, 즉 하나님의 신이 ‘내가 될 때 진정한 인신합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마귀 인신합일’에서 ‘하나님 인신합일’로 향해 가는 위대한 반전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돌이나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AM」 곧 「나,라



<앉아있는 여인> 피카소

당이 똥에 걸려 무너지는 비전(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용 또한 서구 기독교의 잘못된 이념과 체계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예언적인 장면을 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보았던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과 신이 돌이 아닌 하나였음이 드러날 때, 왜곡된 방식으로 성경을 자신의 토대로 삼아왔던 서양의 패러다임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되면 동양과 서양은 저절로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네 생물 =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

여기서 이긴자께서 말씀한 네 생물, 그리

이전 글에서 소상히 말씀드렸거니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밝히신 자신의 이름은 「AM」 곧 「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본래 「나라는 주체영」 「나라는 의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신(神)이며, 마귀 신으로부터 마음의 주인 자리, 왕 자리를 다시 되찾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이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은 「나」를 하지 못해 환장한 신입니다. 마귀에게 주제영 자리, 나라라는 의식의 자리를 빼앗긴 채 무의식의 마귀 속에서 6000년을 신음해온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로 임하려 했음은 다음 장면을 보아도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는 언변이 없으니 다른 자를 보내시라 간청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론이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4:16) 영어로는 “You will be as God to him.”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있어 하나님 역할을 한다, 아니 아예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이름으로 모세 「내가 되어 움직일 때,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인간 누구누구거나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나」이고 모세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인신합일(人神合一)입니다.

알고 보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신합일의 장면들,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성경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로 창세기서 49장을 보면 야곱이 단(檀)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다.”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두 구절의 짝을 맞춰 보십시오. 단을 ‘심판자’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단(檀)이라는 존재에게 심판자 즉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 했습니다. 앞의 ‘심판자’와 뒤의 ‘구원자’가 다른 존재일까요? 심판자가 곧 구원자입니다. 또한 앞 구절의 단은 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응되어 짝을 이룹니다. 이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단 지파의 흐름을 타고 구세주가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영적 의미에 있어서는 단(檀) 자신, 그리고 단의 후손 ‘이긴자’가 그대로 심판자이자 구원자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단과 모세와 같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생물은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 우리 인간 자신의 영적 화상입니다. 이 네 생물의 비전은 하늘과 땅의 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두 마귀 신에게 갇혀있는 죄수 신체의 하나님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등한 쪽인 왼쪽에 있을뿐더러 숫자로도 송아지는 하나요, 사자와 독수리 마귀 왕은 둘이니 하나님이 절대열세(劣勢)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왕인 독수리와 사자가 포위하고 있으니 송아지가 어찌하겠습니까.

네 생물에 대한 이해는 피카소의 큐비즘적 인물화를 떠올리면 오히려 이해가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 참조)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한 사람의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보이는 여러 얼굴들로 쪼갠 후, 다시 한 화면에 배치한 그림들로 유명합니다. 그의 그림이 그토록 못 사람의 영감을 자극하고 칭송받는 것은 그의 그림이 인간 존재의 영적 다중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네 생물임을, 그리고 영적인 다중적 존재임을 포착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술적 천재인 것이지요.

다시 네 생물로 돌아와,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과 요한이 본 네 생물의 비전인 것입니다. 「네 생물」이 바로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 사람(四覽)입니다.

네 생물 = 사람(四覽)

해서 격양육도 사람을 「四覽」으로 쓰

고 있습니다. 넷, 넷에 불覽입니다. 이를 두고 흔히들 ‘넷’을 본다고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넷은 목격어가 아니라 주어(主語)로 보아야 합니다. 넷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넷이, 네 ‘존재’가 본다. 입니다. 사람(四覽)의 넷은 네 존재, 네 주제, 네 생물(living creatures)입니다. 보고 있는 존재가 넷이어서 사람(四覽)인 것입니다.

불교의 팔정도(八正道)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정견(正見) 정어(正語) 등에서의 정을 ‘바르게’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되면 인간 내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한다는 말이 됩니다. 인간 나는 마귀 나입니다. 인간은, 마귀는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정(正)은 하나의 주제, 존재, 즉 주제영으로 보아 ‘바른(正)이 본다’ ‘바름(正)이 말한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正)은 정도령(正道令), 바른 도(道)를 호령하는 자(者), 5숫자에서 보이는 여러 얼굴들로 쪼갠 후, 다시 한 화면에 배치한 그림들로 유명합니다. 그의 그림이 그토록 못 사람의 영감을 자극하고 칭송받는 것은 그의 그림이 인간 존재의 영적 다중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네 생물임을, 그리고 영적인 다중적 존재임을 포착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술적 천재인 것이지요.

네 생물의 왕(王)

그렇다면 네 생물은 마귀 속에 갇힌 무기한 하나님인 채 그 운명을 다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이제 성경의 네 생물과, 이긴자께서 말씀하신 ‘네 생물의 왕’을 짝을 맞추어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

金譯 / 의사 kimtaek8@nate.com